

 POSRI 보고서

메가 FTA, 아시아 경제 지도 바꾼다

김지선 수석연구원, 경영연구센터 (jisunkim@posri.re.kr)

유승록 상무보, 철강연구센터 (srryu@posri.re.kr)

[목 차]

1. 아시아에 부는 경제통합의 바람
2. TPP, 아태지역 경제통합을 위한 플랫폼
3. RCEP, 아시아 지역의 세계 경제 위상 제고
4. 한중일 FTA, 안정적 정치·경제 협력체제 구축
5. 향후 전망 및 시사점

Executive Summary

- 세계 경제에서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의 중요도가 높아짐에 따라 아시아 지역을 아우르는 메가 FTA 추진을 통한 경제통합 움직임 가속화
 - 미국을 비롯한 아태지역 12개국의 TPP, 중국을 중심으로 한국, 일본, ASEAN 등 16개국이 참여하는 RCEP 및 한중일 3국 FTA 협상이 진행 중
 - 현재 추진 중인 메가 FTA는 정치·경제적 영향력이 높은 국가들을 포함하고 있어 타결 시 파급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

	TPP	RCEP	한중일 FTA
추진배경	아태지역 경제통합 위한 플랫폼	아시아 지역 세계 경제 위상 제고	안정적 정치 경제 협력 체제 구축
참가국	미국, 브루나이, 싱가포르, 칠레, 호주, 베트남, 캐나다, 일본, 페루, 뉴질랜드, 멕시코, 말레이시아 * 우리나라는 TPP 참여 고려 중	중국, 한국, 일본, 인도, 호주, 뉴질랜드, ASEAN (10개국)	한국, 중국, 일본
경제적 위상 (對세계)	GDP 37%, 인구 11%, 수출입 27%	GDP 28%, 인구 48%, 수출입 31%	GDP 20%, 인구 22%, 수출입 20%
협상전망	협상 막바지 '15년 상반기 타결 전망	협상 초기단계 연내 타결 난망	협상 초기단계 연내 타결 난망
예상 시장개방수준	高 • 상품: 예외 없는 관세 철폐 목표 • 서비스/투자: 일부 제외 전부분 개방	中 또는 低	中 또는 低

- 타결을 눈앞에 두고 있는 TPP의 경우, 우리나라 참여 시 역내 공급망 참여 기회 확대 등 긍정적인 영향이 기대되나 국내 시장개방에 따른 피해 우려 상존
 - 역내 국가에서 조달한 소재 및 부품을 자국과 동일한 원산지로 인정하는 '누적 원산지기준'의 적용으로 역내 분업구조 개편 및 공급망 확대 기대
 - 농수산물 수출국가인 캐나다, 호주 등으로부터의 수입 증가와 제조업의 경우 일본 등 다른 국가들이 비교우위에 있는 품목의 수입 증가 우려 존재
- 메가 FTA 체결에 따른 기회 및 리스크 요인을 분석, 활용방안을 모색하고 해외 진출에 대한 전략적 접근 필요
 - 누적원산지 기준 적용 등으로 국내 제조업의 현지 생산체제에 변화가 예상됨에 따라 역내 마케팅 기반 사전 확보와 생산거점의 효율적인 운영방안 마련 필요
 - 또한 다수의 FTA 체결로 원산지 증명 부담이 가중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철저한 관리 및 시스템 강화 필요

1. 아시아 지역에 부는 경제통합의 바람

□ 세계 경제에서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의 중요도가 높아짐에 따라 아시아 지역을 아우르는 경제통합 움직임 가속화

- 미국을 비롯한 아태지역 12개국의 TPP*, 중국을 중심으로 한국, 일본, ASEAN 등 16개국이 참여하는 RCEP**과 한중일 3국 FTA 협상이 진행 중
 - 또한 APEC 21개 회원국이 참여하는 FTAAP***협상 개시 논의도 진행 중

* TPP (Trans-Pacific Strategic Economic Partnership):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 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 FTAAP (Free Trade Area of the Asia-Pacific): 아태자유무역지대

□ 현재 추진 중인 메가 FTA는 정치·경제적 영향력이 높은 국가들을 포함하고 있어 타결 시 파급 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

- 현재 협상이 막바지에 다다른 TPP의 경우 전세계 인구의 약 11%, GDP의 약 37%, 교역의 약 27% 차지
 - 공식 논의를 준비 중인 FTAAP의 경우 전세계 인구의 약 39%, GDP의 약 56%, 교역의 약 49%를 차지, 체결 시 세계 최대 경제블록 탄생 전망

< 현재 추진 중인 메가 FTA의 경제적 위상 (2013년 기준, 전세계 대비 %) >

	인구	GDP	對세계 무역		
			수출	수입	수출입
한중일 FTA	22%	20%	21%	18%	20%
TPP (12개국)	11%	37%	25%	30%	27%
RCEP (16개국)	48%	28%	32% ¹⁾	29% ¹⁾	31% ¹⁾
FTAAP (21개국)	39%	56%	47% ²⁾	51% ²⁾	49% ²⁾

주: 1) 데이터 부재로 미얀마, 라오스, 필리핀 미반영

2) 데이터 부재로 파푸아뉴기니, 필리핀, 타이페이 미반영

자료: World Bank, World Integrated Trade Solution (WITS) 데이터베이스 POSRI 정리 (2015.01.17)

□ 우리나라는 ‘동아시아 경제 통합 논의의 핵심 축(linchpin) 역할’을 한다는 통상 전략 하에 지역 통합 흐름에 동참

- 정부는 급변하는 글로벌 통상 환경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국제 무대에서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 통상정책 패러다임의 변화 도모
- 특히 세계 경제의 새로운 축으로 부상한 중국과의 FTA 타결을 계기로 아시아·태평양 경제통합의 허브(hub)로서의 역할 수행 기대

< 우리나라가 참여 (고려) 중인 메가 FTA >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2. TPP, 아태지역 경제통합을 위한 플랫폼

□ TPP는 상품에 대한 관세 철폐를 비롯, 정부조달, 서비스, 투자, 지재산권 등 포괄적 분야에서의 수준 높은 시장개방 추구

- 아시아-태평양 지역 경제 통합을 목표로 농수산물을 포함한 대부분의 품목에 대한 관세 및 비관세 장벽 철폐를 논의 중
 - 상품의 경우 예외 없는 관세화, 서비스/투자의 경우 열거된 미개방 분야를 제외한 모든 분야를 개방하는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을 논의 중
 - 또한 역내 국가에서 조달한 소재 및 부품을 자국과 동일한 원산지로 인정하는 ‘누적 원산지기준’ 도입을 통해 역내 공급망 강화 도모

< TPP 협상개요 >

구분	주요내용
협상현황	- '05.6월 뉴질랜드, 싱가포르, 칠레, 브루나이 4개국 (P4)이 맺은 협정을 기초로 12개국으로 협상 참가국 확대 - '10.3월~'13.8월까지 총 19차례 협상 개최. 이후 각료회의 및 수석대표회의 개최
참가국	- 미국, 뉴질랜드, 싱가포르, 칠레, 브루나이, 호주, 캐나다, 일본, 말레이시아, 멕시코, 페루, 베트남 12개국
협상내용	- 상품, 서비스, 투자, 지재산권, 정부조달, 경쟁, 환경, 국영기업 등 총 29개 챕터 (일괄타결 원칙) - [상품] 예외 없는 관세화, 역내 공급망 강화를 위한 누적 원산지 규정 도입 등 - [서비스/투자]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 (개방 제외 분야 열거), 투자 분쟁해결절차 - [기타] 경쟁법 및 제도의 강화, 제품의 안전규격 등에 대한 규범 제정 등
주요이슈	- 일본은 5대 민감품목 (쌀, 돼지고기·쇠고기, 유제품, 말·보리, 설탕)의 보호를 요구하고 있으나 미국은 예외 없는 개방 주장 - 미국 등은 의약품 지적재산권 및 특허권 강화를 요구하고 있으나 호주, 베트남 등은 의약품 가격 인상 등을 이유로 반대 - 미국은 국영기업 지원 철폐를 주장하고 있는 반면, 말레이시아, 베트남, 싱가포르 등 국영기업 비중이 높은 국가들은 지원철폐 대신 내부감사 강화 등을 제시

자료: KOTRA (2014) 등 자료 POSRI 재정리 (2015.01.14)

□ 올 해 상반기 타결을 목표로 농수산물, 지재권 등 주요 사안에 대한 참가국 간 이견을 조율 중

○ 특히 미국과 일본 간 주요 품목 관세 철폐에 대한 이견 존재

- 일본의 경우 5대 민감품목(쌀, 돼지고기·쇠고기, 유제품, 밀·보리, 설탕) 보호를 주장하고 있는 반면 미국은 예외 없는 관세 철폐 주장
- 또한 일본은 자동차 시장의 관세 즉시 철폐를 요구하고 있는 반면 미국은 관세의 단계적 철폐와 비관세 장벽 철폐 및 세이프가드 권한 요구
- 이밖에 지재권, 국영기업 보호 등의 이슈에 대한 국가간 이해를 조율 중

□ 우리나라는 현재 협상에 참여하고 있지는 않으나 TPP 참여에 대한 관심을 표명, 개별 회원국과의 예비 협상을 진행한 바 있음

○ 우리나라의 TPP 참여 여부는 협상이 완료된 이후 결정될 예정

- 그 동안 정부는 한중 FTA 우선 타결 등을 이유로 미국 주도의 TPP 참여 여부에 대한 공식적인 결정은 유보해 왔음
- 하지만 대내적으로 TPP 관련 설명회 개최, 전문가들로 구성된 산학연 'TPP 전략포럼'을 발족하는 등 TPP 대응을 위한 논의 전개

○ 우리나라는 이미 대부분의 TPP 참가국과 양자 FTA를 체결하고 있으나 정치·외교적 여건 등을 고려해볼 때 TPP 참가에 무게가 실리는 상황

- '15년 1월 현재 TPP 협상 참가 12개국 중 9개국과 FTA가 발효 중이며 뉴질랜드와는 타결, 일본, 멕시코와는 협상이 진행 중
- TPP 협상 주도국인 미국과의 외교적 관계, 對TPP 교역규모 (전체 교역의 약 34%) 등을 고려할 때 TPP 참여 가능성은 높음¹

[참고 1] APEC 최종목적지, FTAAP (Free Trade Area of the Asia-Pacific)

- [추진배경] 1989년 출범한 APEC (Asia Pacific Economic Cooperation)은 기본 목표로 지역 내 무역과 투자 자유화 등 협력 추구를 제시
- [추진동향] 2004년 APEC 기업인자문위원회(ABAC)가 아태지역 경제통합 실현 방안의 하나로 제안하여 2006년 APEC 정상회의 이후 APEC의 중장기 목표로서 추진 방안을 논의 중. 지난해 11월 중국에서 열린 제 22차 APEC 정상회의에서 각국 정상들은 'FTAAP 실현을 위한 로드맵'을 채택하였으며 향후 2년간 '공동전략연구' 실시에 합의
- [참가국] 호주, 브루나이, 캐나다, 칠레, 중국, 홍콩, 인도네시아, 일본, 한국, 말레이시아, 멕시코, 뉴질랜드, 파푸아뉴기니, 페루, 필리핀, 러시아, 싱가포르, 타이페이, 태국, 미국, 베트남 등 21개국
- [우리나라의 입장]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열린 APEC 정상회의에서 'FTAAP 실현을 위한 로드맵'을 적극 지지한다고 입장 표명

¹ 2013년 한국의 對 TPP 교역액 (수출+수입)은 약 3,417억 달러 (KOTRA 2014)

3. RCEP, 아시아 지역의 세계 경제 위상 제고

□ RCEP은 '13년 5월 이후 현재까지 6차례 협상을 진행하였으며 각 챕터별 포함해야 할 요소 등 기본적인 사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

○ 동아시아 지역 내 미국과 중국 간의 주도권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ASEAN 및 이들과 FTA를 체결한 6개국은 통합 경제체제 구축 모색

- 상품, 서비스, 투자는 물론 경쟁, 지재권, 경제협력 등 포괄적인 분야를 포함하고 있으며 중소기업, 전자상거래, 정부조달, 노동 등도 논의 예정

< RCEP 협상개요 >

구분	주요내용
개요	- '12. 11월 동아시아 정상회의 계기로 RCEP 협상 개시 선언. '13년 5월 제1차 협상 이후 현재까지 6차례 협상 완료
참가국	- 중국, 한국, 일본, 인도, 호주, 뉴질랜드, ASEAN 10개국 (브루나이, 캄보디아, 태국,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베트남) 등 16개국
협상동향	- [상품] 협상방식, 협상목표 등 시장자유화 협상의 기반이 되는 기본지침 논의 - [서비스/투자] 자유화 방식 (포지티브/네거티브 리스트) 및 협정문 포함 요소 등 기본적인 사안에 대한 논의 진행 - [규범/협력] 4개 작업반 (경쟁, 지재권, 경제기술협력, 법률제도) 및 4개 소작업반 (원산지, 통관, SPS*, STRACAP**) 작업반 설치 * SPS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 ** STRACAP (Standards, Technical Regulations and Conformity Assessment Procedures): 규격, 기술 규제 및 적합성 평가체계
주요이슈	- 현재 진행 중인 한중일 FTA와의 정합성 유지 및 연계 - 동일한 품목에 상이하게 적용되고 있는 원산지 기준 통일 문제
기대효과	<u>*대외경제정책연구원 (KIEP) 분석내용 (2012 년)</u> (실질 GDP) 발효 시 우리나라 실질 GDP 는 단기적(5 년)으로 약 0.38~0.68% 증가, 중장기적(10 년)으로 약 1.21~1.76% 증가할 것으로 분석 (후생) 발효 시 우리나라 후생은 단기적(5 년)으로 약 89.21~138.56 억 달러, 중장기적(10 년)으로 약 113.51~194.56 억 달러 증가할 것으로 분석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웹사이트 등 POSRI 재정리 (2015.01.14)

□ 2015년 타결을 목표로 협상이 진행 중이나 역내 한중일 FTA, TPP 등의 추진으로 협상이 더디게 진행 중

○ 현재 동일 품목에 대해 상이하게 적용되고 있는 원산지 규정의 통일, 서비스/투자 시장 개방수준 등에서 선·개도국 간 이견 존재

- 상품, 서비스 분야 등에서의 국가별 예외 인정, 국가별 여건을 감안한 점진적 시장개방을 추구하고 있어 시장개방화 수준은 높지 않을 전망

- 우리나라는 RCEP 협상국가 중 일본을 제외한 모든 나라와 양자 FTA를 체결한 바, RCEP 체결에 따른 추가적 영향은 크지 않을 듯
- 이미 체결한 FTA나 TPP 대비 RCEP의 자유화 수준은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나 역내 안정적 교역과 투자 기반 강화의 계기 마련 기대
 - 또한 통일된 원산지규정 적용이 합의될 경우 기존에 다른 참가국들과 체결한 FTA의 통합적 관리 및 효율성 제고 기대

4. 한중일 FTA, 안정적 정치·경제 협력체제 구축

- 한중일 FTA는 3국간 경제협력 관계의 제도적 토대는 물론 동아시아 경제통합의 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12년 11월 협상 개시 선언
- 또한 FTA를 통한 경제협력체제를 바탕으로 3국의 안정적인 정치 협력 관계 및 동아시아 평화 기반 마련 기대
- 현재까지 6차례 협상을 진행하였으나 협정 대상 및 범위 등 기본적인 사안에 대한 입장 차이로 협상은 더디게 진전
-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FTA를 표방하고 있으나 상품 양허, 서비스 및 투자 분야 개방방식 등에 대한 상이한 이해관계로 협상은 답보 상태
 - 상품, 서비스, 투자는 물론 경쟁, 지재권, 전자상거래, 환경 등 다양한 규범과 협력 분야를 포함
 - 협상의 의미 있는 진전을 위해 제6차 협상부터 공식협상을 실무협상과 수석대표 협상으로 분리해서 실시
- 체결 시 우리나라에 미치는 정치·경제적 파급영향은 클 것으로 전망
- 세계 경제의 주요 축인 중국, 일본과의 FTA 체결을 통해 우리나라 교역 확대는 물론 GDP와 후생 등에 긍정적인 영향 기대
 - 한중일 3국은 전세계 인구의 약 22%, GDP의 약 20%, 교역의 약 20% 차지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IEP)에 따르면 중장기(10년)적으로 실질 GDP는 최대 약 1.5%, 후생은 약 163.5억 달러까지 증가할 것으로 분석
- 우리나라는 이미 체결된 한중 FTA, 협상 중인 RCEP 등과의 정합성을 유지하면서 우리의 특혜적 이익이 잠식되지 않는 방향으로 협상 추진

5. 향후 전망 및 시사점

□ [전망] 협상이 막바지에 다다른 TPP의 경우 올 상반기 중 타결이 예상되나, RCEP과 한중일 FTA의 경우 올해 타결 여부는 미지수

- 미국은 TPP의 타결을 위해 의회가 대통령에게 무역협상의 권한을 위임하는 TPA*(무역촉진권한)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추진 중

* TPA (Trade Promotion Authority, 무역촉진권한, 일명 'fast track') : 미국 의회가 대통령에게 광범위한 국제무역협상 권한을 위임하는 것으로 TPA가 주어질 경우 의회는 행정부의 협상결과에 대해 일정기간 내에 승인 또는 부결만을 결정할 수 있으며 협정 내용에 대한 수정은 금지

- RCEP의 경우 미국이 주도하는 TPP에 대항하기 위해 중국을 중심으로 협상을 서두르고는 있으나 국가 간 이견으로 연내 타결은 난망
- 한중일 FTA와 FTAAP의 경우 타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나 TPP, RCEP 등 메가 FTA 타결 시 논의가 가속화 될 전망

□ 메가 FTA 체결 시 FTA 효과 (협정상대국 간 관세 철폐 혜택 등)가 다수의 국가로 확산되면서 우리나라가 기존에 체결한 양자 FTA 효과는 감소

- 과거 '동시다발적 FTA 추진' 정책 하에 많은 FTA가 체결된 상황에서 메가 FTA 체결 시 기존 FTA에 따른 시장선점 효과는 줄어들 것으로 예상
- 하지만 메가 FTA 체결로 역내 분업구조 개편 및 공급망 확대에 따른 우리나라 기업의 해외 진출 기회는 확대될 것으로 기대
 - 또한 역내 단일 원산지 규정과 규범의 적용으로 개별 국가와의 FTA 추진 대비 비용 및 행정적 부담(일명 '스파게티 볼 효과') 낮음
 - 다만 우리나라는 현재 추진 중인 메가 FTA의 주요 참여국들과 이미 양자 FTA를 체결한 상황으로 중복되는 FTA를 비교하여 적용해야 하는 부담 존재

[참고 2] 스파게티 볼 효과 (Spaghetti Bowl Effect)

美 컬럼비아 대학 바그와티 (Bhagwati) 교수가 언급한 개념으로 여러 나라와 동시에 FTA를 체결하면 나라마다 다른 원산지 규정 적용, 통관 절차, 표준 등을 확인하는 데 시간과 인력이 더 들어 당초 기대했던 거래비용 절감 효과가 반감되는 현상을 말함. 다수의 FTA 발효 시 협정상대국 간 다른 규정이 적용돼 서로 얽히고 설키는 부작용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 같은 현상이 마치 스파게티 접시 속 국수 가닥과 닮았다는 뜻으로 비유

□ 우리나라의 TPP 참여 시 역내 공급망 참여 기회 확대 등 긍정적 영향이 기대되나 국내 시장개방에 따른 피해 우려 상존

- 이미 양자 FTA가 체결된 국가들이더라도 TPP 개방수준이 기존 FTA 보다 높을 경우 추가적인 시장개방이 불가피

- 농수산물 수출국가인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베트남 등으로부터의 수입 증가에 따른 국내 산업 피해 우려
- 또한 일본 등 일부 국가들이 우위에 있는 기계, 부품, 자동차 품목들의 국내 수입 증가 우려

< TPP에 따른 기대영향 >

	기대영향	
	긍정적	부정적
TPP 참여시	• 역내 공급망 강화로 사업기회 확대 • 누적 원산지규정 적용으로 원산지기준 충족 용이 • 우리나라 기업의 역내 투자 및 현지 생산 환경 개선	• 국내 시장개방으로 부품, 자동차 등 일본이 우위에 있는 산업의 피해 우려 • 농수산물 수출국가인 캐나다, 호주, 베트남, 뉴질랜드에서의 수입 증가 우려 • TPP와 기존 FTA 중 유리한 FTA 활용이 가능하나 FTA간 비교 등 부담 존재
TPP 불참시	• 국내 시장 추가 개방 부담 無	• TPP 참여국 대비 수출경쟁력 약화 우려 - TPP 내 원산지기준 충족을 위해 중간재 수입선을 한국에서 일본 등 다른 TPP 참여국으로 전환할 가능성도 존재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POSRI

□ 기업은 메가 FTA 체결에 따른 기회 및 리스크 요인을 분석, 활용방안을 모색하고 해외 진출 시 반영 필요

- 우리나라의 TPP 참여 시 누적 원산지기준 적용 등에 따른 국내 제조업의 현지 생산체제에 변화가 예상되는 바 이에 대한 전략적 접근 필요
 - 예를 들면 중국에 생산기지를 둔 국내 제조업체들이 TPP 특혜 관세 혜택을 받기 위해 베트남 등으로 생산기지를 이전할 가능성 존재
 - 따라서 이들 지역에 대한 마케팅 기반 사전 확보 노력과 역내 투자 및 생산거점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방안 필요

□ 또한 다수의 FTA 체결로 원산지 증명 부담이 가중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철저한 관리 및 시스템 강화 필요

- 허술한 원산지 관리로 FTA 특혜 관세 취소 등 불이익 발생 우려
 - 협정별 원산지 규정이 상이하고 복잡하여 이를 충족시키지 못하거나 잘못된 협정관세를 적용하는 경우 관세 추징 및 과태료 부과 가능성 존재

[참고자료]

[보고서]

KOTRA, “최근 우리나라 FTA 확대와 해외진출전략,” Global Market Report 15-003, 2015.01.02

KOTRA, “TPP 협상 동향과 참여국 별 전략 및 산업계 반응,” Global Market Report 14-045, 2014.12.05

산업통상자원부 외, “The Trans-Pacific Partnership (TPP) and Asia-Pacific Economic Integration” (포럼 발표자료), 2013.08.30

한국무역협회 외, “경제 4단체 주최 TPP 기업설명회” (설명자료), 2015.01.26

국제연구원,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경제통합 추진 현황 및 전망,” Trade Brief No. 81, 2014.12.30

[홈페이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 (www.motie.go.kr) (FTA 협상 보도자료 등)

World Bank (www.worldbank.org)

World Integrated Trade Solution (www.wits.worldbank.org)